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포스트 코로나 신앙

인류는 역사 속에서 재난과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흑사병, 산업혁명, 세계대전, 민주화운동,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며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기간 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세례자 수와 새 사제 수, 신설 본당과 건축물 설립을 예로 들어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신앙생활은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상적인 미사 참례에 대한 간절함은 늘었지만, 막상 주일미사에 대한 의무감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연중 제17주일 복음(마태 13,44-52)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아봅시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마태 13,44-46)

이 구절을 마치 유사종교에서 중용하듯 집안 살림을 다 처분하여 자신들에게 헌납하라는 강압적 요구에 대한 근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는 ‘값진 것을 발견함→

가진 것을 다 팔아 값진 것을 선택하고 집중함’의 구조로 요약됩니다. 여기에서 ‘값진 것’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단지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 행복, 성공, 출세, 재산만이 신앙생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값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추구해야 할 ‘밭에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올바르게 찾게 해주는 것,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 참다운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신앙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내용을 현시대에 맞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 방식은 유연성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존 삶의 방식과 인식의 틀이 변화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이에 맞추어 신앙생활 또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다시 말해 각자의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복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값진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신앙생활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신앙’이 아닐까 성찰해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값진 것’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



히말라야가 융기하면서 만들어 낸,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인 ‘판공초’는 해발 4,350m의 염호입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빛으신 모든 창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을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모든 것이 서로 도와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